

# 재활용비 부담으로 플라스틱 난좌 사용 애로

◇ 취재 / 김종준 대리/기자  
(jjun@poultry.or.kr)

2000년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난좌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양계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좌의 사용현황과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소비지에서 재활용 회수율,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취재하였다.



## 1. 농가 난좌 사용 현황

현재 농장에서 사용하는 난좌(캡슐)를 재질로 분류하면 종이와 플라스틱(PET, PVC, PP)으로 구분된다. 플라스틱 난좌의 경우 난좌 받침대로 PP 난좌를 사용하고, 식용란 판란이나 덮개를 PVC 재질로 만들고, 캡슐은 대부분

PET를 사용한다.

농가에서 종이 난좌(캡슐)와 플라스틱 난좌(캡슐)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 난좌 비중이 많고, 플라스틱 캡슐 사용은 농가보다 상품란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다.

플라스틱 재질 난좌 받침대(PP)를 제외하면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종이 난좌의 경우 상인에 구입한 중고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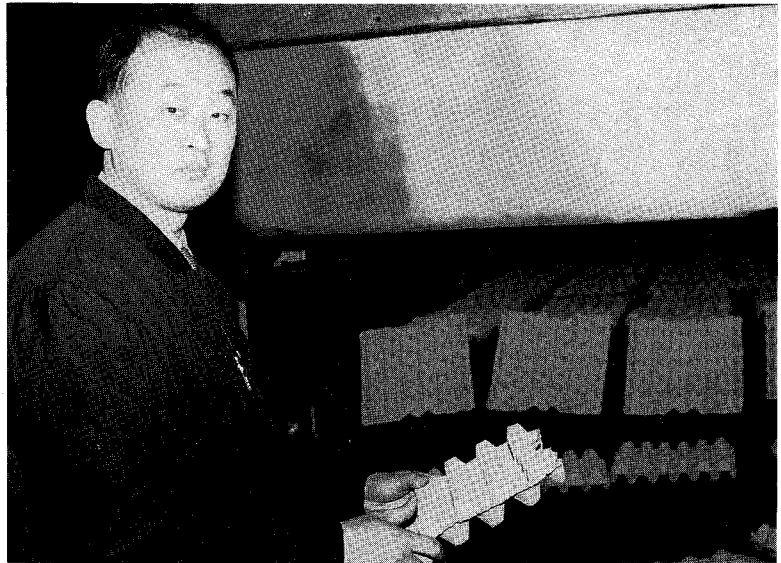
좌를 사용하거나, 일단 반출된 난좌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미 반출된 종이 난좌를 사용하거나 중고 난좌는 난좌 특성상 소독을 하지 못하고 다만 햇빛에 말리고 있다.

## 2. 종이 판란, 플라스틱 캡슐 점유율 상위

일반란을 생산하는 농가는 30구 종이 판란 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에 특수란 또는 기능란(이하 상품란)을 생산하는 농가는 10구~30구 플라스틱 난좌(캡슐)와 종이 난좌를 혼용하고 있다. 이런 농가들의 혼용 사례를 보면 일반란 출하시 30구 판란을 사용하고, 상품란으로 판매할 때는 10구~15구 종이 캡슐이나 플라스틱 캡슐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할 때에는 띠지를 별도로 제작 삽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최근에는 종이 캡슐 사용을 검토하는 추세이다.

종이 난좌 제조업체에 의하면 5~10만수 중·대규모 농가들이 종이 캡슐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것은 띠지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으며, 유통시 열전도율이 낮아 계란품질 유지가 용이하고,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 외국 난좌와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포장지의 색이나 디자인이 차별화되고 있고, 환경규제로 인하여 선진



국에서는 100% 자원 재생 재질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PVC, PP 재질 난좌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다. 난좌업체에 의하면 국내 사용되는 판란의 경우 종이 난좌가 70~80%이고, 캡슐은 플라스틱 비율이 70%이다. 종이 난좌(캡슐)의 1일 생산량은 약 204.9만장 이상, 플라스틱 난좌(캡슐)는 9.6만톤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표. 난좌 생산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생산제품	연락처
종이난좌 및 캡슐	피엠텍	10구, 20구, 30구, 난좌덮개	041-568-1595
	풍년기업	10구, 15구, 20구, 30구, 계란박스	031-498-8271
	에코스텍	10구, 20구, 30구	02-424-0160
	화성필프	30구, 10구	054-633-4986
	나은환경	30구	043-877-1282
플라스틱 난좌 및 캡슐	ECS산업	30구	031-883-9613
	카본드	2구, 10구, 15구, 30구	031-452-5001
	상진화학	10구	031-982-3088
	탑코프레이션	10구, 15구, 30구, 난좌덮개	041-531-8097
	삼원산업	30구	053-857-7800
	동아산업	30구	031-664-8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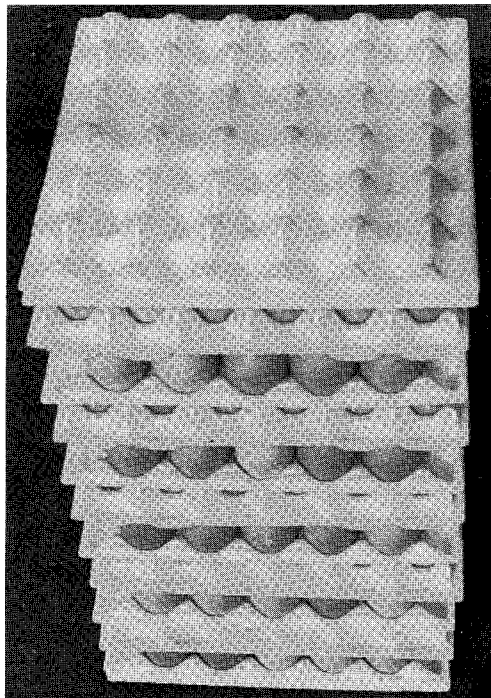
난좌 생산업체는 현재 피엠텍, 카몬드, 에코 스텍, 풍년기업, 화성산업, ECS, 탑코프레이션, 삼원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한번쯤 부도 위기를 겪었거나 부도 후 재생한 업체들이다. 이는 난좌 생산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이 난좌 및 종이 캡슐을 생산하는 P사의 박상규 과장에 의하면 1일 종이 난좌(캡슐) 생산량이 33만장이 되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반도체 트레이, 아이크림 트레이, 병 트레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가와 달러 상승으로 난좌 생산의 원자재 구입비가 40% 이상 올라가고 있지만 이를 난좌 생산비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종이 난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난좌 원료로 신문지와 골판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재활용 종이 난좌의 구입 비용이 신문지와 골판지에 비하여 2배가 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폐지를 이용하여 종이 캡슐을 생산할 경우 판매 가격은 10구는 평균 100~120원인데 디자인과 인쇄가 된 경우는 일반 캡슐보다 10원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30구의 경우 왕관 난좌는 68~80원, 일반 난좌는 58~7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제품 질과 구매방식(공동구매, 개별구매)에 따라 1~2원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 난좌(캡슐)를 생산 업체는 5개사

로 조사되고 있는데 C업체에서 생산하는 PVC 재질의 30구(왕관) 난좌는 90원, PET 재질 30구 난좌(특란)은 60원, 15구(왕관) 150원, 15구(특란) 85원, 10구(특란) 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 가격은 업체별, 거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난좌 두께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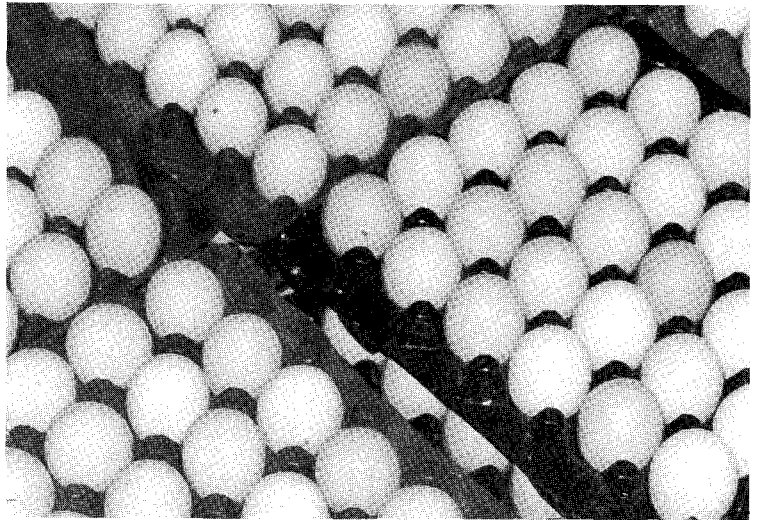
### 3.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시행 농가 부담 증가될 듯

현재 유통되는 플라스틱 재질 난좌와 캡슐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적용된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를 주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 부담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용기 사용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제시한 것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이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와 더불어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999. 2. 19 환경부령 제68호)"에는 합성수지 재질포장



재의 연차별 감량을 이행토록 하고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난좌)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2002년부터 80%이상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등록된 양계농가(산란업 6만수 규모로 추정) 중 자체 브랜드 또는 상표를 부착·표시한 계란을 출하·판매할 경우 재활용 의무 대상자가 된다.



채란업에서 플라스틱 난좌와 캡슐(PVC, PET)를 사용하는 농가, 상인, 난가공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1월말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활용의무결과보고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재활용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과금 산출은 재활용기준비용(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kg당 178원, 플로비닐클로라이드(PVC): kg당 981원)을 기준하여 부과한다 [부과금 산출식: 의무이행량 x 별표6.재활용기준비용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미이행률별(5~30%)].

이 같은 환경정책 변화를 플라스틱 난좌 및 캡슐을 사용하는 양계농가, 계란 유통상인, 난가공업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농가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고, 특정 농가가 시범 업체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만약 환경부에서 재활용의무 불이행으로 부과금을 부과할지라도 수익이 없는 농

가들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이 본래도에 진입하면 플라스틱난좌(PVC, PET)를 사용하는 농가, 상인, 난가공업체는 사용하는 플라스틱 난좌 및 캡슐을 사용하는 만큼 재활용해야 되나 플라스틱 용기에 계란을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용기를 회수할 수 없고, 회수하여 플라스틱 난좌 및 캡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자들이 재활용의무대행 기관인 품목별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 의무를 대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재활용 의무를 대신할 재활용공제조합의 공제(공제비용 캡슐당 4~5원)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시행으로 계란유통비용이 상승은 필연 조건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양계**